

**Daniel: 8 – Sermon Notes**

Title: “Daniel explains the dream - part 2”

Scripture: Daniel 2:24-35

Date preached: July 28th 2024

**Scripture: Daniel 2:36-45**

**36 “This is the dream. Now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of it before the king. 37 You, O king, are a king of kings. For the God of heaven has given you a kingdom, power, strength, and glory; 38 and wherever the children of men dwell, or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heaven, He has given *them* into your hand, and has made you ruler over them all—you are this head of gold. 39 But after you shall arise another kingdom inferior to yours; then another, a third kingdom of bronze, which shall rule over all the earth. 40 And the fourth kingdom shall be as strong as iron, inasmuch as iron breaks in pieces and shatters everything; and like iron that crushes, *that kingdom* will break in pieces and crush all the others. 41 Whereas you saw the feet and toes, partly of potter’s clay and partly of iron, the kingdom shall be divided; yet the strength of the iron shall be in it, just as you saw the iron mixed with ceramic clay. 42 And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so* the kingdom shall be partly strong and partly fragile. 43 As you saw iron mixed with ceramic clay, they will mingle with the seed of men; but they will not adhere to one another, just as iron does not mix with clay. 44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45 Inasmuch as you saw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it broke in pieces the iron, the bronze,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the great God has made known to the king what will come to pass after this. The dream is certain, and its interpretation is sure.”**

36 “지금까지 제가 그 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우대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8 하나님이 왕에게 온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그 신상의 금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39 왕의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철이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박살내듯이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숴 버릴 것입니다. 41 대왕께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고 또 일부는 철로 된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보신 대로 거기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으므로 그 나라에는 철처럼 강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42 그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것을 뜻하며 43 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44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45 대왕께서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신에서 떨어진 돌이 날아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수뜨린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왕에게 말씀드린 꿈과 해몽은 확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Review**

Before we look at more detail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a moment to briefly review where we are in the story.

We find ourselves in the year of 603 BC. This was the second “official” year of king

Nebuchadnezzar's reign. It was in this year that he began to experience some disturbing dreams. Perhaps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he had one recurring dream that troubled him greatly. He felt strongly that the dream was significant. That it carried an important message about the future. Therefore the king sought someone who could unravel the secret of his dream.

He called all of his wise men together and demanded that they reveal what he had dreamed, and provide an interpretation. The mystics, psychics and other occult practitioners of Babylon tell the king that such a thing is impossible. How could they see inside his head and determine what he had dreamt. This was something only a divine being could accomplish. Greatly angered by their time wasting and excuses the king issues a decree that all the wise men be rounded up and executed. Included here on the list of those to die were our four heroes;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When Daniel learns of this he persuades Arioch the chief executioner to tell him why the king was so angry, and then allow him to meet with the king. Arioch agrees and Daniel has his audience with the king. He asks for more time so that he can seek God and provide an interpretation for the dream. The king allows him this. Daniel then returns to the others, and they throw themselves at God's mercy. They pray that God reveal to them this secret. God does not disappoint. Daniel sees both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during a night vision.

He returns to Arioch who takes him in to meet with the king. The king asks him if he is able to unravel the secret. Daniel instantly acts to draw the king away from any kind of human ability or skill. He reminds the king that all of his highly trained occult staff had been unable to furnish him with an answer. Daniel was not here because he had any special power, or because he was so much wiser than everyone else. He knew the secret only because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had revealed it to him.

The dream is a revelation of what will occur in the “latter days.” The king it seems had concerns about the future. He wondered perhaps how long he might reign and how great his empire would become. So God is revealing through this dream what will be. The dream covers a period of time stretching from the era of Nebuchadnezzar right up to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to earth.

Last time we examined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dream. As Nebuchadnezzar slept he dreamt of a large, powerful and extremely bright image. As I mentioned last time there was something awe inspiring and terrible about this image. It truly terrified the king. The bible never tells us what form the image took but most scholars assume that it was in the form of a man. Most likely a powerful, warrior.

Daniel then goes on to describe the statue by highlighting the materials from which the statue was composed. Most statues that we see today whether in museums, or in public places are made of a single material. We see for example statues made of stone, marble, metal, plastic or glass. This statue however was made up of a mix of different materials. These differing materials, as we shall soon discover were highly symbolic. But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The head of the statue was made of gold. Gold is the most valuable and precious metal. The upper torso and arms were made of silver. Silver is also a precious metal, but not quite as desirable, or as valuable as gold. If I offered you a gold or silver ring which would you take?

The lower torso (belly and thighs) were made out of bronze. The legs were made of iron and finally the feet were a mix of iron and clay. Two materials that do not bond together.

We finished up last time by talking about what happened as the king stood in awe of this image. As he watched a stone of divine origin flew through the air and struck the feet of the statue. This, as I noted last time was the weakest point of this structure. The stone smashes the feet and the image

crumbles. As it falls it disintegrates into powdery particles that are carried away by the wind. The divine stone that has destroyed this image then begins to grow eventually becoming a mountain that fills the whole earth.

This was Nebuchadnezzar's strange and disturbing dream. What does it all mean? Well unravelling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오늘의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03 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이후 “공식적인” 두 번째 해입니다. 이때 왕은 불안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크게 괴롭히는 한 가지 꿈을 계속적으로 꾸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꿈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학자들을 모아서 그가 꾸는 꿈을 말하고 해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빌론의 신비술사, 심령술사 및 기타 신비술 수행자들은 왕에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의 머리 속을 보고 그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까? 이는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변명하는 데 크게 분노한 왕은 모든 학자들을 잡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단에 우리의 영웅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된 다니엘은 집행관 아리옥을 설득하여 왕이 그토록 화가 난 이유를 듣고 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리옥은 이에 동의하고 다니엘은 왕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이를 허락합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밤에 환상을 통해 그 꿈과 해석을 알게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과 함께 왕을 접견하러 갑니다. 왕은 그에게 비밀을 풀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왕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모든 신비술사들이 왕에게 답을 줄 수 없었던 사실을 왕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비밀을 아는 이유는 오직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앞으로 the latter days”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왕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 동안 통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제국이 얼마나 위대해질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메시야가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지난 주에 꿈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거대하고 강력하며 극도로 밝은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스러운 무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신상이 어떤 형태를 취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강력한 전사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신상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강조하여 그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날 박물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조각상은 단일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돌, 대리석,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만든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본 신상은 다양한 재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 볼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금속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 역시 귀금속이지만 금만큼 가치 있거나 귀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반지나 은반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체(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이 두 재료는 서로 엉겨붙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이 겁에 질린 채 이 신상을 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성한 기원의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신상의 가장 약한 곳이었습다. 돌이 발을 부수버리자 신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면서 가루 입자로 분해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이 신상을 파괴한 신성한 돌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기이하고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 36 “This is the dream. Now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of it before the king.

Daniel has provided an accurate account of Nebuchadnezzar's dream. We know this because the king has not spoken up to challenge or question anything Daniel has said. Daniel exhibits great confidence. This is not derived from his own insight or wisdom but comes from complete trust or faith in God. He knows that what God has given him is the truth. He can speak boldly to the king without fear or trepidation.

After explaining what made up the dream he will now move onto the all important interpretation. What does it all mean. Note how he begins, “Now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Who's the “we” here? Daniel is standing alone before the king. Why employ the first person plural?

Actually what it demonstrates is Daniel's humility. He is acknowledging that the interpretation is not coming from him. He neither deserves nor wants the reward or credit for it. He is only able to provide the interpretation because God gave it to him. So in using “we” he is directing the king's attention away from him and forcing him to think about who is really revealing or unwrapping this secret. Let us move on.

### 36 “지금까지 제가 그 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내용에 대해 왕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그의 통찰력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왕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한 후에 그는 중요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들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말을 시작하는지 주목하세요. "이제부터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Now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여기서 "우라"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1 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해석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공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해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라고 언급함으로써 다니엘은 왕의 관심을 자기에게서 돌려 실제로 이 비밀을 밝히는 분이 누구인지 왕이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37 You, O king, are a king of kings. For the God of heaven has given you a kingdom, power, strength, and glory; 38 and wherever the children of men dwell, or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heaven, He has given *them* into your hand, and has made you ruler over them all—you *are* this head of gold.**

Daniel begins in a way that today we would describe as being excessive and over the top flattery. This however was the protocol of those times. It was simply the way one addressed a king. To break with such protocol was to risk angering the king.

In Nebuchadnezzar's case there was some validity to the title “king of kings.” Nebuchadnezzar was an absolute monarch.

He exercised unrestricted authority over life and death throughout all Babylon. His word was law which meant that no prior written law could challenge his will. He was unquestionably the supreme authority in the world of his day. None of the succeeding empires had a ruler quite like him! This will be a significant point to note as we look at all the empires mentioned in the prophetic dream.

The empires that followed Babylon all had systems in which power was not centralised or focused in one single individual (an absolute monarch). Power in the other empires was shared or dispersed. This meant that they were less effective and could not rule and reign as only an absolute monarch can. When there are numerous equal stakeholders or power-brokers it means things have to be debated and discussed before decisions can be made. This was never an issue for Nebuchadnezzar. This is how he is described by the prophet Ezekiel,

**7 “For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bring against Tyre from the nort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king of kings, with horses, with chariots, and with horsemen, and an army with many people. (Ezekiel 26:7)**

The prophet Jeremiah had also warned the kings of Edom, Moab, Ammon, Tyre, and Sidon that God had given Nebuchadnezzar sovereignty over the entire earth, including the animals (Jer. 27:6-7). So simply stated Nebuchadnezzar was a powerful king who ruled with total control over everything.

Daniel then quite rightly affords him the level of respect due to a man in his exalted position. The bible commands us to respect and submit to those that God has set in power over us (Romans 13:1-7, 1 Tim 2:1-2, Heb 13:17). But we are never to regard such people more highly than God Himself. So whilst Daniel shows due deference to the king he goes on to remind him of who gave him his power, strength and glory. It was the God of heaven, the Great “I am” who allowed Nebuchadnezzar to rule and reign as he did.

That's an important thing for us all to remember as we contemplate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the world today. It is God who allows people, be they kings, presidents, prime ministers or military generals to rule. It is also God who brings their time in power to an end. They may make plans to attack and conquer other nations, but they will only succeed if God allows them.

God had allowed the Babylonian empire to expand and grow extremely rich and powerful. Its influence extended from the Mediterranean sea all the way to India. It had the largest most populous cities in existence at that time. Its artistic treasures too were a marvel. God had placed Nebuchadnezzar over all of this. Now it may be true that all the empires that followed his were greater in terms of size, but no one exercised absolute control as he did. He truly stood at the head of world empires. So Daniel tells him that the golden head of the dream image was the Babylonian empire.

Why gold you may ask. Well gold was very important in the Babylonian empire. When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visited Babylon 90 years after the time of Nebuchadnezzar he was staggered by how much gold he saw in the city. Everywhere he looked he saw things made out of solid gold. So it is entirely appropriate that the statue is topped by a golden head symbolizing the Babylonian empire.

The statue as we shall soon discover represented four successive Gentile empires. Now, historically speaking the Babylonian empire was an ancient one.

It had its roots way back in Genesis (Gen 11:1-9). But the empire that Nebuchadnezzar ruled over was actually the new Babylonian empire (the Neo-Babylonian empire). It was founded by his father Nabopolassar in 627 BC. It fell to the Medo-Persians in 539 BC.

So this mighty empire did not last long. It only existed for 88 years. It burnt bright but faded quickly.

**37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8 하나님이 왕에게 온 세상 사람들과 삼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그 신상의 금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최상의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규약을 어기는 것은 왕을 노엽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왕들 중의 왕”이라는 칭호가 어느 정도 티당했습니다. 그는 절대군주였습니다.

그는 바빌론 전역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고, 이전에 쓰여졌던 어떤 법도 그의 뜻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제국들의 어떤 통치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꿈에 언급된 모든 제국들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바빌론 이후의 제국들은 모두 권력이 한 개인(절대군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국의 권력은 공유되거나 분산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덜 효과적이고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통치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동등한 이해관계자나 권력 중개인이 많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7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마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에스겔 26:7)**

게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동물의 세계를 포함하여 온 땅에 대한 주권을 주셨다고 경고했습니다(예레 27:6-7). 간단히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존경을 왕에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우리 위에 세운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로마서 13:1-7, 딤후 2:1-2, 히 13:17). 물론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라하신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 I AM”이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처럼 세계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할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왕,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그들이 통치하도록 하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준 권력의 시간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정복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하실 경우에만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이 팽창하여 극도로 부유하고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하라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중해에서부터 인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예술적인 문화 재도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왕국 이후에 일어난 제국들이 크기 면에서는 더 컸을지라도, 그 누구도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세계 제국의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금 머리가 바빌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 금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에서는 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느부갓네 살이 9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론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있는 많은 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상 꼭대기에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 머리가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곧 보시겠지만 그 신상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네 아방인 제국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빌론제국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뿌리는 창세기(창 11:1-9)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제국은 새로운 바벨론 제국(신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627 년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세르(Nabopolassar)가 건국하였고, 기원전 539 년에 메도-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은 오래 가지 못했고, 단지 88 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밝게 타올랐지만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39 But after you shall arise another kingdom inferior to yours; then another, a third kingdom of bronze, which shall rule over all the earth.**

As we have just noted in 539 BC the Babylonian empire was conquered by the combined forces of the Medo-Persians. They are represented on the statue as the silver arms and upper torso. What you may ask is the significance of silver.

Well “silver” in Aramaic is the same word as “money.” So the primary driving characteristic of the Medo-Persian Empire would be the desire for money or silver. History bears this out. The Medo-Persian Empire developed a vast system of taxation. They required that their taxes be paid in silver, and they literally filled their coffers with huge quantities of silver.

The two arms represent the coming together of the two different nations, the Medes and Persians. Although they did unite, and were militarily successful they never really culturally cohered. They were led by the Persian king Cyrus the Great. This reflects that whilst they were united the stronger of the two nations was always the Persians.

Now you may wonder in what way this empire was inferior to the Babylonian empire. In fact their empire covered a larger geographical area, and it lasted longer (about 208 years).

Well,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consider things from Nebuchadnezzar's vantage point. He would have considered the Medo-Persian's system of leadership inferior to the Babylonian system. The Persian monarchs could not annul a law once it went into effect. In other words the law was superior to the word of the monarch. This restricted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king. So if an absolute monarch is the gold standard (Nebuchadnezzar's view) then the Medo-Persians are like silver. What they offered was precious, strong and desirable but not as pure and perfect as gold.

The Medo-Persian empire was conquered by the third empire represented on the statue. They were the Greeks led by Alexander the Great. The Medo-Persian's demise came about in 331 BC. The Greek empire is symbolised by the bronze belly and upper thighs. Again this metal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Greeks.

A Greek soldier wore a helmet and a breastplate of bronze. He carried a sword and shield made of bronze. You guessed it, bronze. So bronze symbolises the military power and might of the Greek empire. Its territory was even larger than that of Medo-Persia. Greece dominated the ancient cradle of civilization from 331 to 31 BC. So it lasted longer than either Babylonia or Persia (about 300 years).

So how was the Greek empire inferior in terms of quality to the Medo-Persian empire. As you are aware Alexander the Great died in 323 BC aged just 32. At his death his empire was split into four parts. Each of Alexander's top generals took one piece. This meant that the Greek empire lacked the unified strength of both Persia and Babylonia. Also its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gave more power to the people, and less to the rulers at the top. It is for these reasons judged to be inferior. Let us read on and learn about the fourth empire.

**39 왕의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control becomes weaker. This will certainly be the case with Rome. Rome as it expanded increasingly struggled with internal strife. The people and the senate played major roles in setting its policies, and they controlled the emperors far more than had been true in the preceding empires. This constant infighting led to an inner weakness which ultimately brought down the empire.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철이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박**  
**□□□□ □□ □□□□ □□ □□ □□ □□□□ .**

그리스 제국은 기원전 31 년 로마에게 패배했습니다. 신상에서 철로 이루어진 다리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이 금, 은, 청동과 같은 금속 보다 강한 것처럼 로마인들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합니다. 동부와 서부 로마 제국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제국들을 능가하는 진취함과 조직적인 힘으로 모든 반대 세력들을 분쇄하였습니다. 소로 된 “다리”가 상징하는 그들의 막강한 군대는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제국의 규모 측면에서 로마는 이전의 어떤 제국보다 더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유럽 전역에 걸쳐 뻗어 있었고 북아프리카와 동부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국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기원전 31 년부터 서기 476 년까지, 동로마 제국은 서기 1453 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어떤 면에서 열등합니까?

이 쪽에서 여러분이 패탄을 인지하셨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는 절대군주를 통한 통치가 최선의 길입니다. 절대 군주의 권력이 희석되면 통치와 통제 체제가 약화됩니다.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마는 확장되면서 내부 분쟁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과 의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이 이전 제국에서보다 훨씬 더 황제를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내분은 내부로 부터의 약점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41 Whereas you saw the feet and toes, partly of potter’s clay and partly of iron, the kingdom shall be divided; yet the strength of the iron shall be in it, just as you saw the iron mixed with ceramic clay. 42 And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so the kingdom shall be partly strong and partly fragile. 43 As you saw iron mixed with ceramic clay, they will mingle with the seed of men; but they will not adhere to one another, just as iron does not mix with clay.**

We arrive now at the base of the statue. The feet and toes that are made with a mix of iron and clay. Generally speaking biblical scholars agree on the other elements of the statue. But the same cannot be said for the feet and the toes.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whom the feet and ten toes represent. The feet of iron and clay are without doubt the most controversial part of Nebuchadnezzar’s dream.

So let me begin by making a few general statements.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at in iron and clay we have two materials do not bond or stick well together. Iron is a strong material, whereas clay by comparison is weak. Ancient soldiers didn’t go into battle armed with clay swords. So any object made of two none adhering materials is prone to weakness. No warrior would ever construct a sword out of iron and clay.

In a similar way a kingdom that is comprised of elements that do not work well, or co-operate together is compromised. The Roman empire was a case in point. As it spread it embraced different and diverse cultures all the while trying to stay united. It is very difficult, perhaps impossible to unite everyone to a single idea. This is especially true if some feel resentment at having their culture being disrespected or trampled upon.

We see a similar thing happening today as many western nations become increasingly multi-cultural. Once we introduce vast numbers of people who have different values and ideologies to the host nation we frequently witness disunity and fracture. The strength of a nation is potentially weakened by those who do not accept, or even reject the beliefs, values or systems upon which it is

built.

So some commentators think that the iron and clay represent competing systems or ideologies. For example, it may represent imperial or dictatorial rule versus democracy. Imperial power caters to the leaders, whereas democracy caters to those led (the people). It is impossible to have both work effectively at the same time. From Nebuchadnezzar's view-point rule by an absolute monarch is like iron, but once we introduce democracy (clay) this pure, strong form of leadership is diluted and weakened.

The mention of mingling with the seed of men is also interesting. It hints perhaps at the forced intermingling of cultures and peoples brought about by Rome's military conquests. As I noted before it's hard to get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o agree. It may also allude to marriage. The joining together of peoples from very diverse backgrounds.

If we have two people who possess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or world-views coming together what is the likely outcome? Often the relationship is doomed to failure. So the message seems to be that Rome's marriage of iron and clay was doomed from the start.

Many commentators therefore read these three verses and see them as being connected to the fourth kingdom, the Roman empire. There may be some validity to this interpretation because as I have just laid out many of these things align with what history has shown us. Rome was ultimately a mix of strength and weakness that did eventually succumb and collapse.

However the feet and the toes also point towards a future final kingdom. This will be part of Daniel's prediction later in this book (Daniel 7). It is intentionally linked here with the Roman empire for a very good reason. This is because the feet and toes represent a revival of the old Roman empire. It will be the last Gentile empire of history.

How exactly such a grouping of nations will come into existence is yet to be determined. The Bible however makes it clear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this is the future for mankind (Dan 2:31-35, 40-45; 7:7-8, 19-24 ; Rev 13:1-2; 17:3, 7, 12-16). It will comprise 10 blocks or groupings of nations into regional confederations. Where will the headquarters for this world system be? You guessed it somewhere in the old Roman empire; Europe.

How will this system be governed or managed? Well, initially at first it seems likely that each confederation will have its own "king." Eventually these kings will be replaced by a single figure. A global world leader (a dictator). Who will this person be? Let me give you a clue. His name begins with "A," and ends in "Christ." I'll talk more on this a little later. Now you may think this all sounds completely far fetched. But take a look at this.

**41 대왕께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고 또 일부는 철로 된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나누어 질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보신 대로 거기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으므로 그 나라에는 철처럼 강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42 그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것을 뜻하며 43 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상의 아랫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학자들은 신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발과 열 발가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의심할 바 없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철과 진흙은 서로 잘 엉겨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은 강한 물질인 반면 진흙은 약한 물질입니다. 고대 군인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검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달라붙지 않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는 약합니다. 어떤 전사도 철과 진흙을 섞어 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On September 17, 1973, they released a Report called the “Regionalized and Adaptive Model of the Global World System.” The report was prepared by Directors Mesarovic and Pestel as part of the “Strategy for Survival Project.” This report revealed the Club’s goal of dividing the world into ten political/economic regions. The ten regions would unite the entire world under a single form of government. The same plan was published in a Club of Rome book called “Mankind at the Turning Point.”

So this is in humanities future. When and how this will take place are questions that at this present time we cannot answer. All I will say is that you should be aware of the signs and trends that are gradually nudging us in this direction. Expect them to become more obvious as the months and years go by.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1973 년 로마클럽 the Club of Rome 이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로마클럽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클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공유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이다. 회원들은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경제학자, 비즈니스 리더, 고위 공무원 및 전직 국가 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https://www.clubofrome.org/members/>)*

그들은 영향력 있는 그룹인가요? 그럼 이것 좀 보세요

이 피라미드는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통치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보시다시피 로마 클럽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 연구소 think tank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잠재적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를 만들고 형성해 갑니다.

1973 년 9 월 17 일에 그들은 “글로벌 세계 시스템의 지역화 및 적응 모델 Regionalized and Adaptive Model of the Global World System”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 개의 정치/경제 지역으로 나누려는 로마클럽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10 개 지역은 단일 정부 아래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계획이 “전환점에 있는 인류(Mankind at the Turning Point)”라는 제목의 로마클럽 책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점차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장후와 추세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44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45 Inasmuch as you saw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it broke in pieces the iron, the bronze,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the great God has made known to the king what will come to pass after this. The dream is certain, and its interpretation is sure.”**

Daniel concludes his interpretation of the dream by bringing the stone back into focus. You will remember that Nebuchadnezzar's dream ended with a stone, “uncut by human hands” hitting the feet of the image and shattering them. This in turn brought the whole edifice down. Following this the stone became a mountain that filled the whole earth.

Daniel turns his attention first to explaining when this will take place. It will be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clear and obvious reading of this is that it will take place during the time that the world has been divided up into 10 regions. This as we noted before is an end time event. It may be the case that the 10 kings are in position before the rapture takes place. They will definitely be in place when the seven year tribulation begins.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we see from scripture th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Antichrist

leads to the killing of three of the ten kings. From that time on, the world will be ruled by the Antichrist alone, with the seven remaining kings giving their power to the Antichrist. This period of time will come to an end by the appearance of “the stone.”

A “stone” or a “rock is a frequent symbol of God and Jesus Christ in scripture. So in the prophecy the "stone" signifies an eternal kingdom that God Himself will establish. This is the kingdom ruled by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 stone) who proceeds from God the Father (the mountain).

The kingdom that Christ establishes will demolish all the kingdoms that exist at that time. Also unlike all of the human kingdoms of the past God's kingdom will last forever. When Christ returns at the second coming He will rule and reign for a thousand years. At the end of this time the present heavens and earth will be destroyed to be replaced by the new heavens, earth and Jerusalem. It is in this realm that we will live with God for eternity.

Daniel concludes his prophecy in a very careful and precise way. He tells the king that all he has just told him comes directly from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He has not added to, or embellished anything that has been said. Because this has come from God it can wholly and fully be trusted. As I have pointed out on many occasions in recent weeks God cannot lie. He keeps his promises. So Nebuchadnezzar should have no doubts about the dreams interpretation. Equally, we too should have no doubts that what God has revealed in His Word will indeed come to pass.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king's response to Daniel's interpretation.

**44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45 대왕께서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떨어진 돌이 날아와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수뜨린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왕에게 말씀드린 꿈과 해몽은 확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다니엘은 돌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그 돌은 온 땅을 가득 채운 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 **in the days of these kings** 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세계가 10 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사건입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열 왕이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7 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열 왕 중 세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 때부터 세상은 적그리스도만이 다스릴 것이며, 남은 일곱 왕은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 기간은 “돌”의 출현으로 끝날 것이다.

“돌stone” 또는 “바위rock”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에서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the mountain)께로부터 오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돌the stone)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은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우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자신의 예언을 끝맺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방금 말한 모든 것은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왕의 반응을 □□□□□□□□.

### **Lesson to learn**

I have three lessons that I have drawn from today's study.

저는 오늘 공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It all rests in God's mighty hands**

Any keen student of history will tell you that the past is made up of one empire succeeding another. We saw that today as Daniel explained the symbolism of the statue. No doubt each empire at their height thought they were invincible. That their armies, skills and expertise meant that they could not be defeated or conquered. They were all proven to be wrong in this assessment. All empires have their time and die. In fact all things go through five discernable stages; birth, growth, maturity, decline and then death. Empires are no different from squirrels, trees or human beings. The main point that Daniel is making to king Nebuchadnezzar though is that God is the one overseeing all of this. The king's power and authority came from God. He had the right to withdraw it at any moment. It makes no difference how powerful a man you are and how big and mighty your empire. God controls it all. It all rests in His mighty hands.

This means that we do not need to feel stressed about the men or nations today, or in the future who threaten our safety and security. We may worry about tyrants like Vladimir Putin or Kim Jong Eun. The truth however is that we do not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 these things. Just like the empires of old all their power lies in God's mighty hands. We can trust Him to do what is best and right in every situation.

#### **1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한 역사 연구하려면 과거의 역사는 제국의 연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신상의 상징을 해석할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제국은 자국의 전성기 때에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대, 기술, 전문성으로 인해 패배하거나 정복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모두 틀렸습니다. 모든 제국에는 자기들의 때가 있고 그 후에는 멸망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눈에 띄는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 birth, 성장 growth, 성숙 maturity, 쇠퇴 decline 그리고 죽음 death. 제국들도 다름쥐, 나무,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주요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가진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언제든지 그것을 철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나 국가로 인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인과 같은 독재자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자혜롭고 옳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 **2 We should expect decline and decay**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about living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your family and loved ones is not being able to physically see them often. Today modern technology makes it much easier to talk and see each other through programs such as Skype and Zoom. These things weren't available when I first moved to Korea. So often several years went by before I could return to the UK in person. I was always shocked by how people had aged. When you see people all the time you



